

기고

겨울철 안전,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겨울철은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실내 활동이 늘고 난방장치, 열선,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과 상가, 축사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 특성상 전기화재는 초기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기량이 많아 대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전기화재의 대부분은 과부하, 과열, 접촉불량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다.

전열기구를 한 멀티탭에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접히거나 눌린 전선-전기장판으로 인한 과열, 오래된 전선 피복 손상, 차단기·배전반 내부 먼지로 인한 누전 등은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특히 열선의 검침, 목은 먼지, 느슨해진 전선 접촉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은 더욱 치명적이다.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반드시 전용 콘센트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작동 시 간헐적으로 켜다 켜 주며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이나 방석 등을 겹쳐 덮지 말고, 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둘 경우 내부 열이 갇혀 발화 위험이 높아진다. 또 열선은 검침·눌림 없는 '직선형 설치'가 원칙이며, 오래된 멀티탭이나 콘센트는 3~5년 주기 교체 안전하다.

전기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뽑기 ▲멀티탭에 전열기구 2대 이상 연결 금지 ▲피복 손상 전선은 즉시 교체 ▲타는 냄새·스파크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전원 차단 ▲취침 전 난방기기 전원 OFF 확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시험 버튼으로 점검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화재를 미연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 장치이다.

전기화재는 화염 확산과 연기 발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화재에는 물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분말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합하다.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 이상 설치 필수이며, 실제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은 가족·직원이 모두 숙지해야 한다. 또한 '경보음 울림 → 전원 차단 → 119 신고' 기본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두면 만일의 상황에서 침착한 대처가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은 작은 부주의 하나로 시작되는 예방 가능한 사고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오늘 하루, 콘센트 하나, 스위치 하나부터 점검해 보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승민



기자수첩

동곡 농협의 토지 매입 "업무상 배임" 특별 감사 개발제한구역 "폐기물매립" 은폐 의혹 진실공방

동곡 농협은 광산구 북동동 123-1번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시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에 승인을 받은 사실은 절차상의 위반이라는 2025. 5월부터 실시한 농협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은 1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 가격도 높게 책정되어, 15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은 적정한 가격 산정과 계약 체결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했으며, 감정평가서에는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중요한 문구가 누락되어 있었고,

광산구청이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물 준공을 설치하 어렵다는 설명을 농협에 전달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매입을 강행했다는 특별감사의 지적으로 의도적인 은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곡농협이 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항의

이후인 2024년 8월에야 광산구청에 로컬푸드 관련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고, 같은 달에 로컬푸드 사업장 불가 입장이 회신된 점을 근거로 로컬푸드 사업장 노력의 허위성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동곡 농협은 조합원들의 반발과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 당시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가계약'이라는 문구도 없어 농협 측 해명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여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졸속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동곡농협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불가능한 농지를 부적절한 내부 승인 절차로 고가에 매입하고, 폐기물 매립 사실과 용도변경 불가 사실을 은폐했으며,

즉, 실제로는 용도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업무상 배임



김준형 동곡농협본부장

의혹이 매우 크다는 특별감사의 지적이다.

해당 토지는 이미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이를 알고도 농협이 시범포 농지로써 재배를 허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들로 인해, 광산구청은 현장조사에서 육안 확인만으로 폐기물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절차적 문제와 함께 의문을 남기고 있는가 하면, 조합장의 위법적 운영과 경영 악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특별감사를 함께 진행한 모 감사가 조합장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감사보고서를 문제 삼아 자신의 이름 사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추석 명절 관례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도 이사회 승인(기, 이사회 결정은 10만 원)도 없이 조합 임의로 50% 삭감하여 지급했다고 한다.

동곡농협은 2025년 상반기 주변 농협 중 유일하게 적자 실적을 낸 동곡 농협의 조합원 들은 최근 제기된 의혹, 및 추석 지급액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합장 간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동곡농협은 북동동123-1번지 비영리토지 매입을 하기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고자, 비 시범포를 한다고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다는 의혹들이 있어, 조합원들의 불신이 점점 커진 상황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따라서 동곡농협의 이번 토지 매입과 관련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의혹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했다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실제 영농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농 의사가 없으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앞으로 행정적·법적 조치 및 조합 내부부의 강도 높은 감시와 개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독자투고

우리 집을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 주택용 소방시설

최근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여전히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는 다소 감소했지만,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공간은 생활과 밀접해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더욱 각별

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재는 '초기 1~2분'이 생사를 나누는 만큼, 경보와 초기진압이 실제 피해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주택 화재 피해 조사 결과 상당수 가정에서 연기감지기나 소화기 등 기본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화재를 늦게 발견해 대피가 지연되거나, 작은 불씨를 소화기 한 대로 충분히 진압할

수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못해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결코 복잡하거나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기가 발생하는 즉시 경보음을 울려 가족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며, ABC형 분말소화기 한 대만 있어도 초기 불길은 충분히 진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명피해가 현저히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넘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월 1회 정도 작동 여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기구 주변 가연물 정리,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등 생활 속 작은 실천도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안상운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음력 11월 20일)

Grid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icons and text.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the Ministry of Transport.